

단편 퇴조 속에 증가일로에 장편소설

테마중심의 연작소설, 세대 콩트 등도 양산 추세

박덕규

문학평론가

최근에 발행되는 문예지나 각종 문학 단행본들을 보면 유독 단편소설의 발표량이 장편소설을 비롯한 여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격감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10년간 중단편 소설에 상당 지면을 할애해 왔던 계간문예지 「문예중앙」이 울들어 전과 같은 책 부피 안에 7,8백매짜리 장편소설을 매호 전제하기 시작했고, 88년 재창간된 「문학과 사회」에서도 전신 「문학과 지성」과는 다르게 창간호부터 김원일의 장편 「마당깊은 집」을 필두로 임철우의 장편 「붉은 산 흰 새」 등을 연이어 집중분재하는 등 장편소설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70년대 중반부터 「오늘의 작가상」 후보·대상 작품들을 전제하는 한편으로 이문열의 장편 「영웅시대」 등을 연재하여 호응을 얻은 계간지 「세계의 문학」에서도 80년대 후반 들어 김주영의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서정인의 「달궁」, 박영환의 「우묵배미의 사랑」, 최학의 「일반화법」 등 일련의 장편형 연작소설들을 연재라는 규정 없이 연이어 게재해 왔음에 비해, 이들 계간지들 모두 단편소설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 존재가치를 일깨우지 않고 있어온 셈이다. 다양한 작가 수용의 명목으로 백매 이내의 단편을 매달 열편 안팎으로 수용하던 월간 문예지들도 이제는 다투듯 장편 분재 및 연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최근의 실정이다.

단행본에서도 기존의 창작집에서 중단편집을 의미하는 「창작집」이라는 말부터 없어져 책의 전체적 일관성을 강조하는 「아무개 소설집」이란 이름으로, 또는 구도소설·세대소설·

교육소설·풍자소설 식으로 테마를 내세우는 중단편 연작소설집으로 그 형태가 전이되고 있다. 이런 실정을 인식하는 순간, 단편소설의 이러한 격감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역시 상대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장편소설을 어떤 문화적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지 난감해진다.

단편소설이 죽어가고 있다!

혹시, 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 단편소설이라는 장르는 다양한 삶의 양태를 실어 보이는데 부적절한 장르가 아닌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바야흐로 단편소설은 사양길에 접어들었지 않은가? 나는 여기서 이 의문부호를 과감하게 떼내어버리고, 대신에 커다란 느낌표 하나를 붙이고 싶은 욕망을 주체할 길 없다. 그렇다, 단편소설이 죽어가고 있다! 단편소설이 죽어가다니, 아, 한국문학의 '꿈의 장르'이던 그것이, 이상의 「날개」가, 황순원의 「소나기」가, 김승옥의 「무진기행」이, 이문열의 「이황량한 역에서」까지, 불세출의 거장들의 그 출세작들이 바야흐로 고전으로 편입되고 있는 것이다.

단편소설이 무엇이던가. 단편소설(short story)이라는 말을 처음 쓴 미국의 매슈즈(B. Mathews)가 일찍이 "참된 단편소설은 길이의 짧은 이상의 것"이라 의미를 부여하면서 단편소설의 통일성과 압축성을 강조한 바 있거니와 이 점 우리의 소설문학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精髓의 자리를 점하게 한 본질적 특징이 되어 왔다. 그런데 단편소설의 현대적 독창

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

단편소설은 다양한 삶의 양태를

실어 보이는데 부적절한

장르는 아닌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바야흐로 단편소설은

사양길에 접어들었지 않은가?

그렇다, 한국문학의 '꿈의 장르'였던

단편소설이 죽어가고 있다.

남은 것은 이제 장편이나 콩트들이다.

성은 무엇보다 자본주의 생산분배의 원리와 관련이 깊다. 한 문예사전은 서구에서의 단편소설의 독창성 확보는 19세기 초반부터 유행한 잡지들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우리의 문화양식 또한 시대만 한 세기 늦을 뿐 이와 유사하다. 소위 신문학 시대 이래 유통되기 시작한 출판매체들은 그만큼만 길이의 단편소설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작가들은 그 짧은 양식 안에서 삶을 집약시키고자 주력하게 되었으니, 긴축성·독창성·교묘성 등 소재의 실제성보다 그 표현기법을 통한 세계이해의 과정이 고스란히 한편의 단편소설 안에 내재될 수 있었다. 이후 우리 소설은 집약적 표현력에 의한 인간정신의 구현이라는 단편소설의 정신과 업적 아래 근대적 맥을 이어온 것이다.

그러나 환경은 변했다. 문화풍토가 문학을

바꾼다는 역사주의 비평 관점의 교훈을 떠올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문학의 변동 사실을 눈앞에서 느낀다. 이제 문예지보다 더 방대한 지면들이 문학을 부르고 있다. 양산된 신문들이 그렇고, 시사잡지며 여성지에 각 기업의 무수한 홍보지까지만 치더라도 국내 인쇄업계는 바빠 비명을 지른다. 이러한 지면들이 소설을 부르는 이유는 첫째는 대중 속에 잠재된 문학의 신비라는 권위이고, 둘째는 꾸민 세계의 재미이다. 소설의 길이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지면들이 요구하는 길이이면 족할 것이며, 그 질적 수준은 거의 작가의 몫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면이 원하는 정도만큼의 대중적 재미인 것이다. 대개 그런 지면에서 요구되는 소설을 길이별로 보면 오래 연재될 수 있는 장편이거나 일회적 즐거움을 유발할 수 있는 길이의 콩트일 것이고, 테마별로 보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신문 연재소설의 경우에 있어서의 대하역사물 따위) 대개 산업사회의 세태를 반영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각각이 넓고 무수한 지면의 한 귀퉁이씩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소설에는 그 언젠가 존재했다는 단편소설의 흔적이 드물다. 남은 것은 장편이나 콩트들.

"절판된 장편이라도 좋으니 달라"

이럴 때 권위와 신뢰를 자랑하던 문예지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다. 울들어 문예진흥원 지원고료마저 끊긴 판이니 소설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수준이 문제라고 외치지만 잡지의 지속적 발간을 위해서는 보다 교환가치

현대 프랑스철학총서

- 1 새로운 철학강의 I
A. 베르제즈, D. 위스망/이정우/4,500원
- 2 새로운 철학강의 II
A. 베르제즈, D. 위스망/이정우/4,500원
- 3 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사상
김형호/8,000원
가브리엘 마르셀의
구체철학과 旅程의 형이상학
김형호/6,000원
- 5 메를로-퐁띠와 「살」의 현상학
김형호/근간
- 6 푸코, 마르크시즘, 역사
마크 포스터/이정우/2,800원

- 7 미셸 푸코
존 라이크만 / 심세광 / 3,500원
- 8 구조주의의 이론
장 삐아제외 / 김태수 / 4,000원
- 9 反외디푸스
질르 들뢰즈 / 임문영 / 근간
- 10 동일자와 타자
벵쌍 데콩브 / 박성창 / 4,000원
- 11 광기의 역사
미셸 푸코 / 김부용 / 근간

- 12 지식과 권력
미셸 푸코 / 근간
- 13 목소리와 현상
작꼬 데리다 / 김관오·김연숙 / 근간
- 14 마르크스를 위하여
루이 알튀세르 / 나정원 / 근간
- 15 새로운 과학정신
가스통 바슐라르 / 김용선 / 3,000원
- 16 지식의 고고학
미셸 푸코 / 김부용 / 근간
- 17 부정의 철학
가스통 바슐라르 / 김용선 / 근간

도서출판 **인간사랑** 대표전화 : 464-8144 FAX : 462-5815

가 분명할 장르 쪽을 선호한 수밖에 없게 된다. 마땅히 문예지의 적자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단행본 판매가 손쉬운 원고가 존중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많은 문예지들이 같은 출판사에서의 단행본 출간을 조건으로 하는 장편연재 계약을 다두고 있음을 보면 단편 퇴조현상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그 문예지는 단행본 출판 영리를 전제하는 담보물이 되고 만다.

순수 단행본일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우선 중단편집을 발간해서 그것만으로 이익을 보는 예는 극히 드물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작가 보호를 위해 판매에 관련 없이 중단편집 출간에 기꺼운 출판사도 없지는 않지만 적자생존의 원리가 완벽하게 무시될 수는 없는 일이다. 많은 출판사들이 그래도 중단편집을 발간하고 있는 이면에는 다른 장편소설을 끌어들이기 위한 소위 '이미지 메이킹'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또한 문예지를 낀 단행본 출판사가 '좋은 상품'의 장편소설을 독점하는 현상에 맞서기 위해 많은 신홍출판사들이 인기작가들이나 유망한 신인작가들을 집중공략하여 탈고 몇년 앞서 기백만원(특급 인기작가의 경우 천만원대)으로 계약해 두는 사례도 빈번하다. 몇 출판사에서는 작가 전속제를 도입, 전속 작가에게 매달 창작지원금을 지불하며 그 작가의 모든 창작물 출간을 전담하는 경우까지 있다.

장편 원고를 잡기 어려운 출판사의 불만이 터무니없는 작가 잡기 경쟁을 부르기도 해 십여명 인기작가들은 대개 서로 다른 출판사와

이삼중 계약을 해 두기 일쑤이고 "절판된 장편이라도 좋으니 달라"는 주문에 어떤 장편들은 최근 십년 동안 서너 군데 출판사에서 몇차례 중단되는 현상까지 있다. 또는 기존에 중단편으로 발표된 원고들일지라도 하나의 테마를 내세워 '아무개 구도소설' 식의 이름을 내세운 피카레스크식 연작소설들이 양산되고, 여러 작가의 것을 한자리에 모으는 기획출간의 경우도 '에세이 소설선' '예술가 소설선' '시인이 쓴 사랑 소설선' '민족 소설선' '여류 감성소설선' 따위의 테마기획이라야 그나마 중단편이 보호될 수 있는 처지가 되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의 신종소설, 콩트

이러한 단편 퇴조와 장편 선호의 현상을 창작 주체자인 작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중단편집 한두 권도 내어보지 않은 신인작가들이나 중단편이 주장르이던 작가들에게는 심각한 문화현상일 수도 있겠으나, 사실 보다. 전문화된 의식의 작가들에게 있어 문제될 것은 그런 현상에 내재된 지나친 상업주의의 징후일 뿐 그런 현상 자체가 아니다.

필기도구에 의한 집필에서 워드프로세스 등 기계에 의한 집필로 상당수 전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단편 몇편이 작가의 주장르일 수는 없다. 심지어, '대체역사' 소설로 유명한 어느 작가는 "소설이라 함은 장편소설을 의미하며 단편소설은 서정시에 합일된 장르"라고 공공연히 극언하고 있고, 또 전작대하소설을 속속 출간중인 다른 작가는 "중단편도 뚜렷한 연작 기획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다"고 고백하

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 단편 몇편은 습작기 때의 소설 완성훈련에 해당되는 장르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단편소설은 진정으로 죽어가는 장르란 말인가. 말을 조금 바꾸면, 이미 길이로서의 장·단편 구분은 무의미하며 이 시대는 보다 세세하고 다양한 시각을 기다리고 있다. '자본구조의 세계화' 추세에 함몰된 인간들의 이야기는 이미 단편거리일 수 없는 세계인지 모른다. 모르긴 해도 자본구조 내의 인간상실이라는 주제를 가장 간략하게 묘사하는 길은 오늘날 대중지에서 유행하는 세태콩트뿐일 것이다. 좀더 보태면, 콩트는 자본주의 세태를 반영하는 가장 일회적인 장르로서 이제 더욱 즉각적인 세태묘사와 반전의 묘미에 주력해야 될 '후기 산업사회의 신종소설'이다.

그리고 단편소설은 다음과 같은 양태로 규정되고 있거나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최인훈의 지극히 짧은 단편소설 「달과 소년병」이나 서정인의 단편 「강」 등에서 보듯, 스산한 내면 풍경을 극적 플롯 없이 스케치하듯 묘사해 나가는 '에세이적' 양식. 둘째, 윤후명의 사소설이나 양귀자의 「지구를 색칠하는 페인트공」류의 '개인일상적 허구'의 양식. 그리고 고전적 의미로, 황순원·오정희의 단편들이 자랑하는 '복잡한 인간관계의 집약적 결합'의 양식.

우리 소설이 가야 할 길

길이에 대한 장르구분도 파기되면서, 이제 우리의 장르는 '장편소설화'라고 믿어야 한

다. 이 추세는 기실 꾸준하고 또한 급진적이었다. 스테디셀러인 대하소설들에 「광장」(최인훈), 「당신들의 천국」(이청준)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만다라」(김성동)·「사람의 아들」(이문열) 등 '중편→장편' 개작소설들이 바로 우리의 장르이며, 중편이라고 믿어 왔던 「객지」(황석영)·「장마」(윤홍길)·「환멸을 찾아서」(김원일) 등도 장편의 골격을 온전히 견지하고자 하던 것이었다.

독자들의 장편 선호 심리는 어떤 것인가. 신화가 있을 수 없는 시대에 어떻게 신화가 가능한가를 '당대적 픽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다. 그 심리는 무엇보다 인간들의 완결된 사건을 기다리며, 한편으로는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는 총체적이거나 아니면 지극히 집중탐색적인 시각을 수반하는 방법적 재미를 찾아간다. 이럴 때 우리의 장편소설은 보다 다양한 경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파생된 각계각층의 세분화된 삶의 양태들을 그 각각의 실제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전문성이 철저히 옹호되어야 한다. 이점, 교육소설이다, 기업소설이다, 노동소설이다 하는 분야별 명명을 화제주의 이상의 차원에서 행해야 할 터이다. 우리문학의 중심을 이루어오면서, 또한 다양성을 제한하는데도 큰 몫을 해온 '민족이념'들은 그 전문성의 배면에 들어가 그 당대적 모순이 우리의 역사적 조건과 어떻게 결부되는가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이름하여 '집약적 총체성'이 우리의 '장편소설화' 소설들이 가야 할 길이다.


인 · 간 · 사 · 랑 · 의 · 또 · 다 · 른 · 책 · 들

지푸라기를 아십니까?

작고 가냘픈, 그래서 오래 견디는, 도서출판 인간사랑은 이 시대의 지푸라기가 되어 사람들의 정신을 받쳐줍니다.

대표전화 : 464-8144
FAX : 462-5815


당신도 유능한 카운슬러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정신건강 전문가나 심리학자 또는 카운슬러가 아니면서도 그들이 하는 일과 닮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유진 케네디/이일남/값 3,000원

비디오의 예술세계




포스트 모더니즘과 비디오 아트, 문학적 비디오, 인식론적 TV, 비디오: 자기애의 미학, 비디오 예술, 상상력과 빠른 바이트 등 비디오 예술에 관한 다채로운 작품과 이론이 17편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그레고리 배트코크/채장석/값 4,500원

黒과 赤

-미국흑인의 소련생활체험기-



한 미국흑인으로 노동자의 낙원에 희망을 품고 소련땅을 밟은 한 인간이 평생을 그 사회에 불합치 살면서 소련시민과 일과를 같이 호흡했던 역경의 체험기

로버트르빈슨/송동건/값 3,500원

도서출판 **인간사랑**

1990/07/20 25